

제22회 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 2022



part 1

국내 데이터로 본 20년간의 한국 기부규모 변화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박사과정

◎ 논문

- 2022, The estimates of philanthropic behavior and attitude in South Korea: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hilanthropy and Marketing*, 27(4) (공저)
- 2022, “비영리조직 최고관리자 경험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와 NGO*, 20(1), 335-368.
- 2022,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사례 및 활용 가능성 탐색: 가상화폐와 NFT를 중심으로”, 아름다운재단 (공저)
- 2022, “한국의 기부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 아름다운재단 (공저)
- 2020, “한국의 나눔 행동과 태도 측정: 방법론적 고찰”, 기부문화연구소 (공저)
- 2019, 『기빙코리아 2019』 중 “비영리조직 최고 관리자 분석: 1990~2018”, 기부문화 연구소
- 2019, 『이화 사회적경제 리뷰 2019』 중 “사회 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금융-행복나눔재단의 임팩트 투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 협동과정 (공저)
- 2018, “사회혁신 톨킷 2018”, 아름다운재단 (공동번역)
- 2017, “국내 비영리조직 투명성에 관한 인식 조사”, 아름다운재단 (공저)

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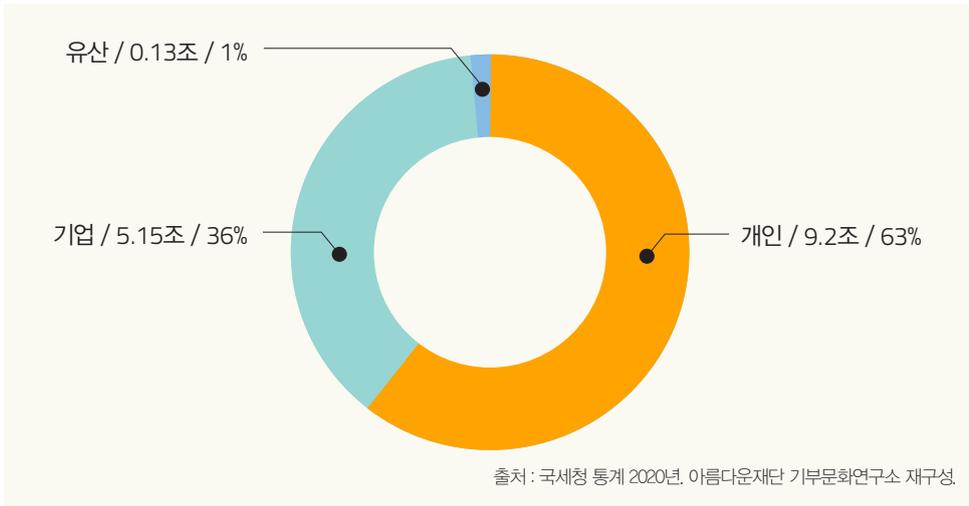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한국의 기부 범위와 규모를 측정하여 기부 인덱스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자 함.
- Giving USA의 경우 개인, 기업, 재단, 유산기부 등 4개의 범주를 추적 조사하고 있음.
- 한국은 Giving USA와 같이 4개의 범주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나, 이들이 기부규모 측정의 주축임을 인용함.
- 한국의 기부 범위와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신뢰할 만한 국세통계연보, 기빙코리아, 그리고 기업공시자료 DART를 사용함.
- 각 범주별 데이터의 한계와 중복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조사, 재정패널, 전경련 사회공헌 백서, 한국가이드스타 등의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음.

II. 국내 총 기부 현황

1. 국내 기부 범주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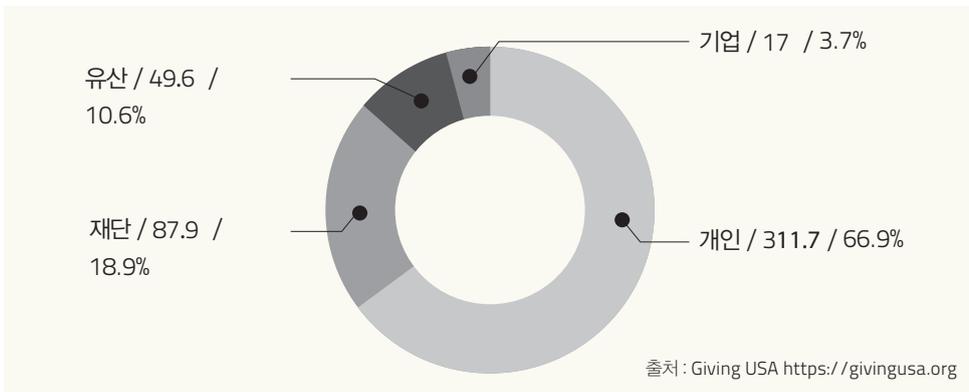
-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기부 총액은 14.4조 원
- 개인 기부 금액은 9조 2천억 원, 법인 기부금은 5조 1천5백억 원(개인 63%, 기업 36%)
- 기부자 평균 기부 금액은 141만 원, 기업 평균 기부 금액은 620만 원
- 유산기부는 1천3백억 원으로 총 기부금 대비 0.09%, 개인기부금 대비 1.42%

〈그림1. 국내 총 기부 규모〉



〈그림2. 미국의 기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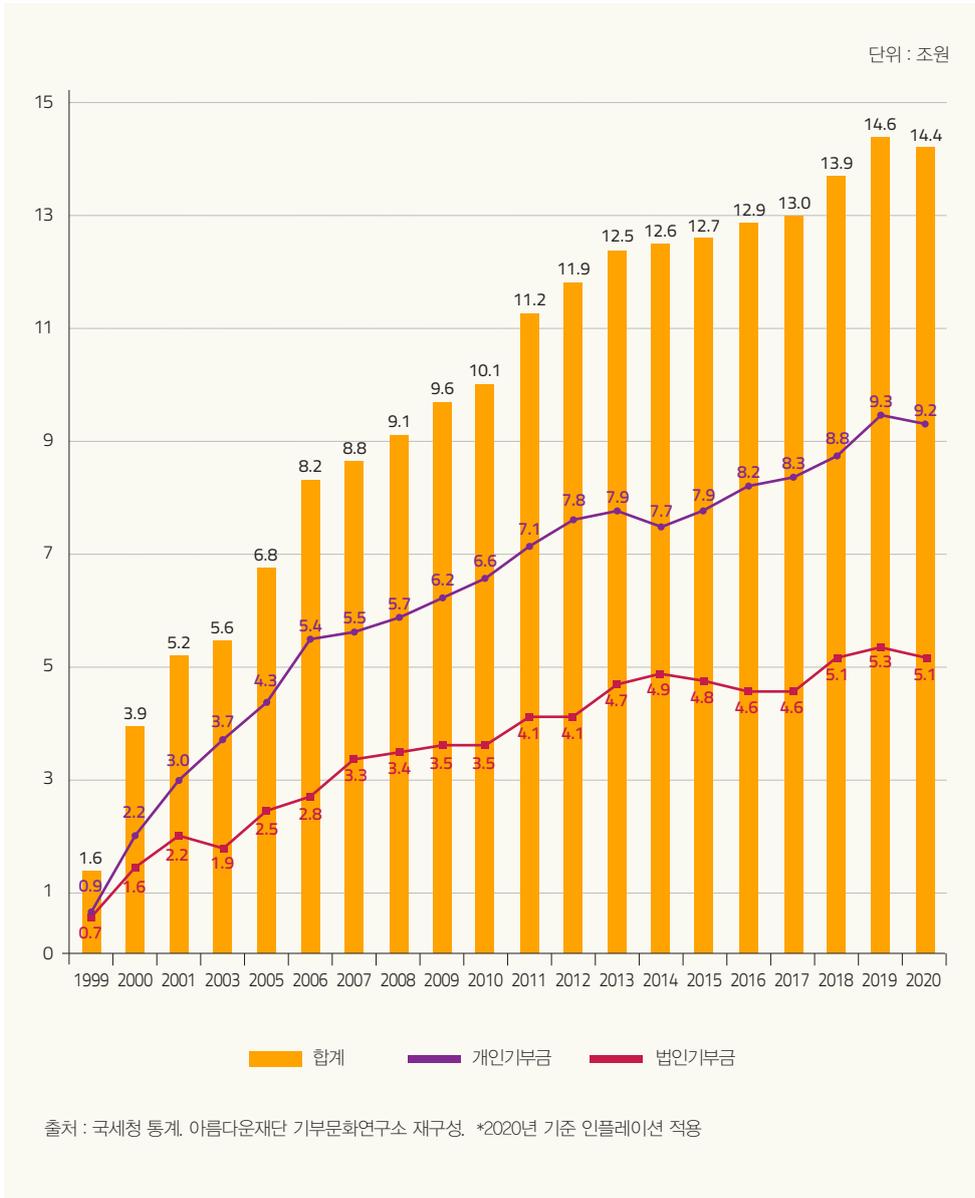
단위 : 십억 달러



2. 국내 기부 총액: 연도별 변화

- 국세청 2020년 기부 총액은 14.4조 원으로 2019년 14.6조 원보다 감소
- 지난 20년간 개인과 기업 기부금 평균 비율은 개인 65%, 기업 35%
- 1998년 이후 개인 기부 총액이 기업 기부금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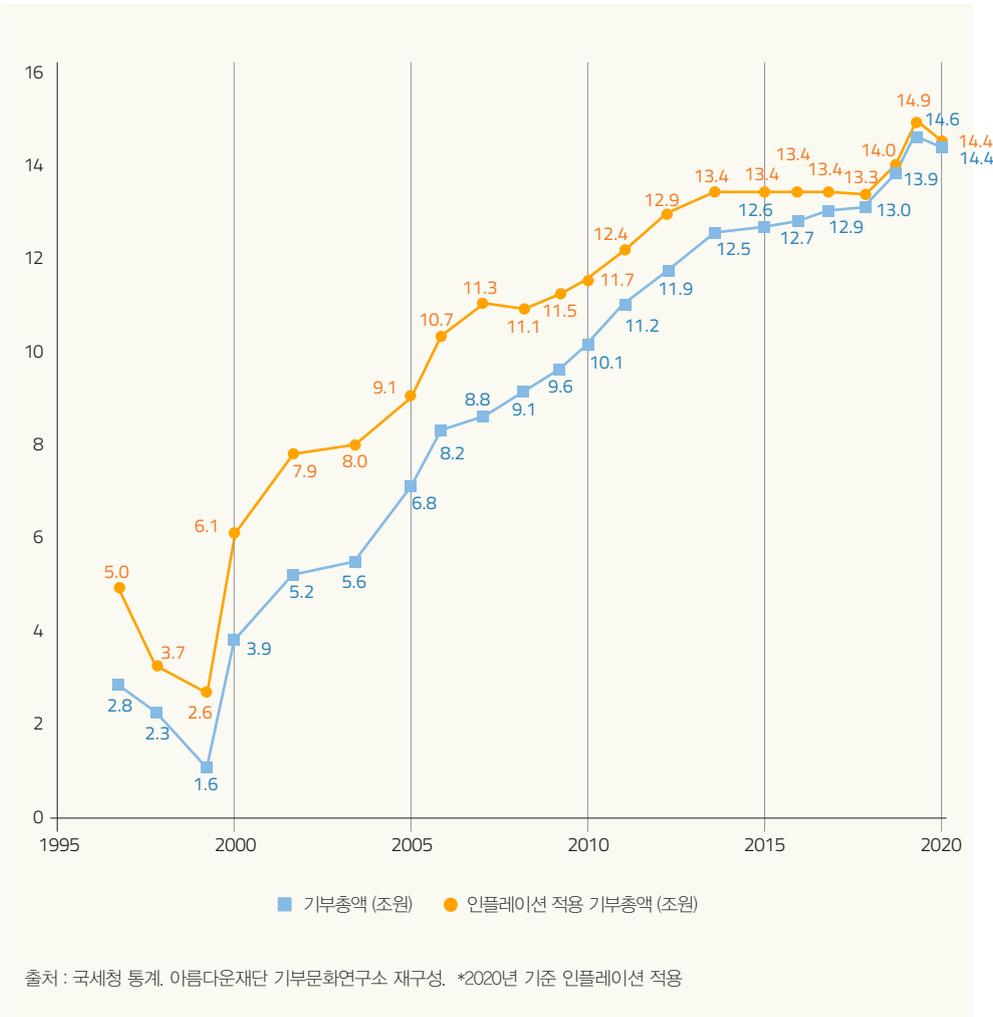
〈그림3. 연도별 기부 총액〉



3. 국내 기부 총액: 물가상승률 적용

- 2000년대 초반 급격한 상승을 시작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4년부터 정체 또는 다소 하락
- 2017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다 2020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다소 하락
- 2013~2017년의 경우 총기부 금액은 12.5, 12.6, 12.7, 12.9, 13조 원으로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플레이션 적용 시 13.4, 13.4, 13.4, 13.4, 13.3조 원으로 정체 또는 하락

〈그림4. 연도별 기부 총액: 인플레이션 적용〉



4. 국내 기부 총액 증감 추이

- 기부 총액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2000년 141.5%, 2001년 29.1%, 2005년 13.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10년 초반에는 1.4~6.8%, 2010년 중반 이후 0.3~5.6% 기록
- 전년 대비 상승률은 점차 하락하는 경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시기는 2008년, 2014년, 2017년, 2020년
- 2008년은 경제위기,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각 0.4%, 1.5%포인트 하락
- 2014년은 개인 기부금 세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효과
- 2017년은 대통령 탄핵 후 새 정부가 출범한 시기로 전 정부와 관련된 재단 스캔들과 새 정부의 기업 기부 정책 영향

〈그림5. 국내 기부금 총액 증감 추이〉



5. GDP 대비 기부 총액

- 2020년 GDP는 전년대비 0.3% 상승한 반면 기부금은 1.4% 하락하였으며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0.7%
- 지난 20년간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0.6~0.8%.
- 동기간 미국의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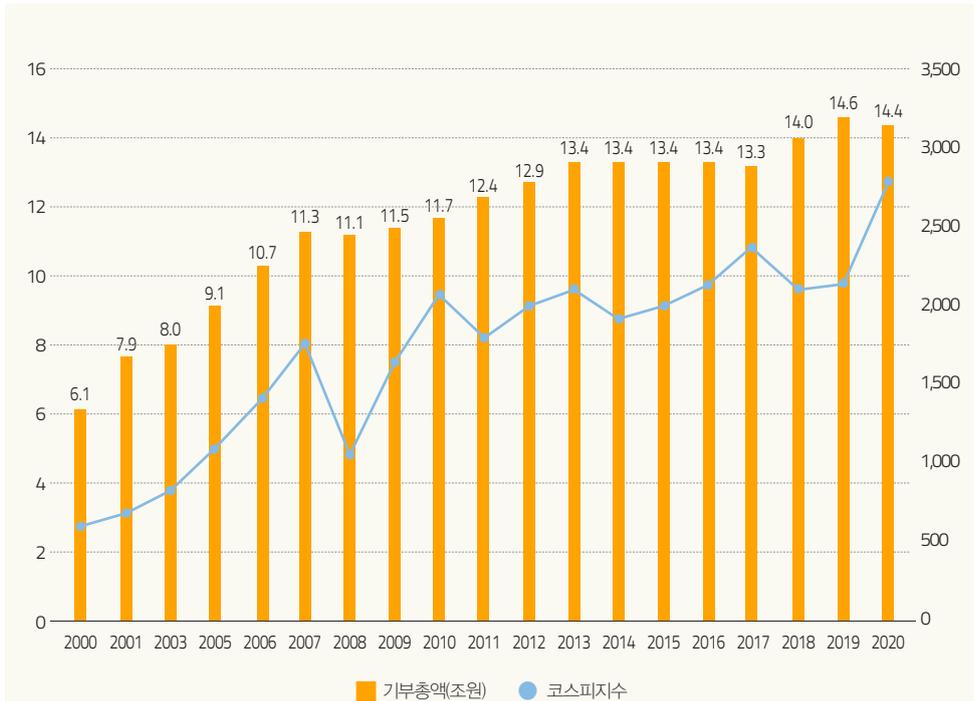
〈그림6. GDP와 기부 총액〉



6. 코스피 지수와 기부 총액

- 코스피와 기부금은 완만한 상승의 유사한 추이
- 2020년 코스피는 31% 상승, 기부금 1.4% 하락

〈그림7. 코스피 지수와 기부 총액〉



출처 : 국세청 통계, e-나라지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재구성. *2020년 기준 인플레이션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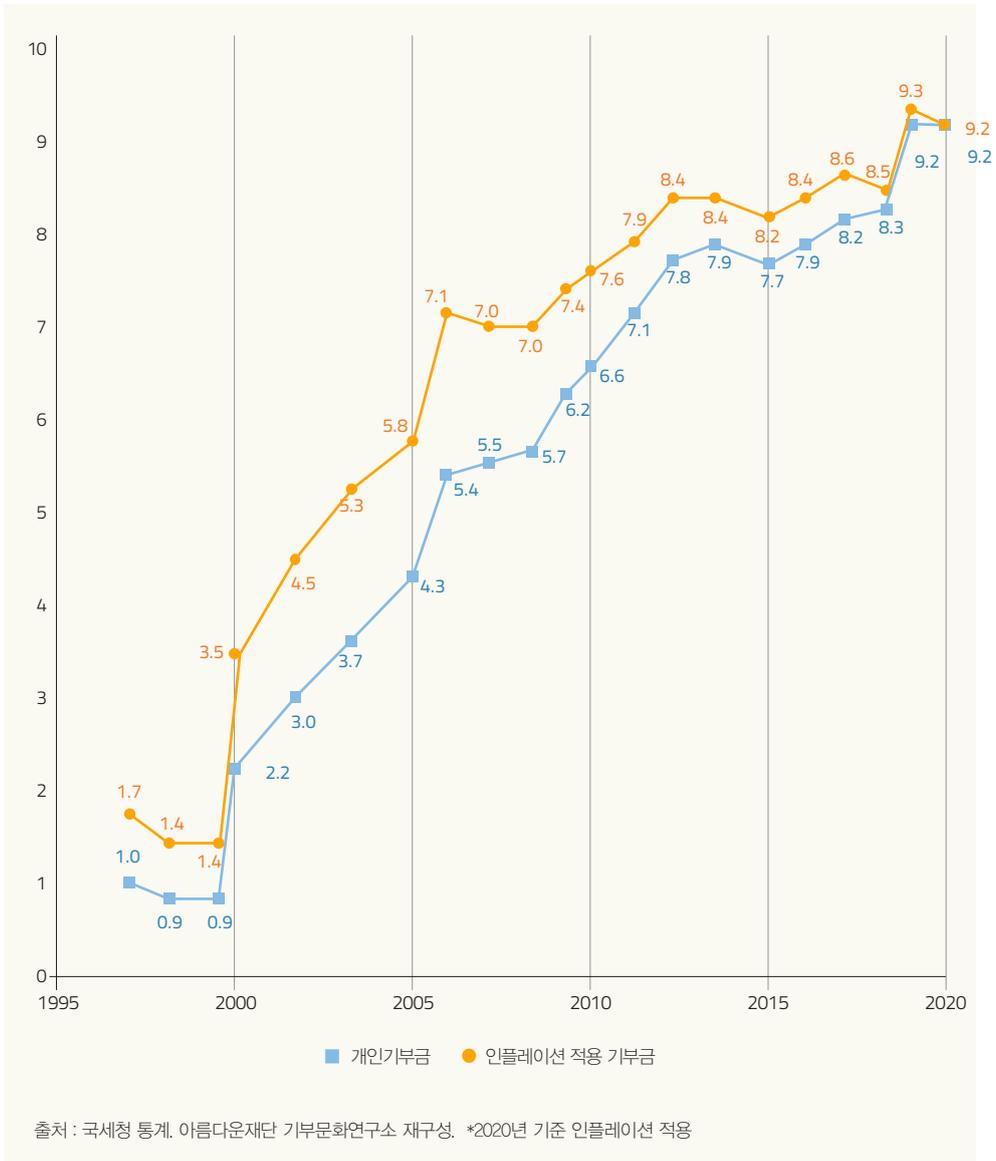
연도	기부총액(조)	코스피지수	연도	기부총액(조)	코스피지수
2000	6.1	504.62	2012	12.9	1,997.05
2001	7.9	693.70	2013	13.4	2,011.34
2003	8.0	810.71	2014	13.4	1,915.59
2005	9.1	1,379.37	2015	13.4	1,961.31
2006	10.7	1,434.46	2016	13.4	2,026.46
2007	11.3	1,897.13	2017	13.3	2,467.49
2008	11.1	1,124.47	2018	14.0	2,041.04
2009	11.5	1,682.77	2019	14.6	2,197.67
2010	11.7	2,051.00	2020	14.4	2,873.47
2011	12.4	1,826.00			

Ⅲ. 개인 기부

1. 개인 기부 총액

- 2020년 개인 기부 총액은 9.2조 원으로, 2019년 9.3억 원 대비 다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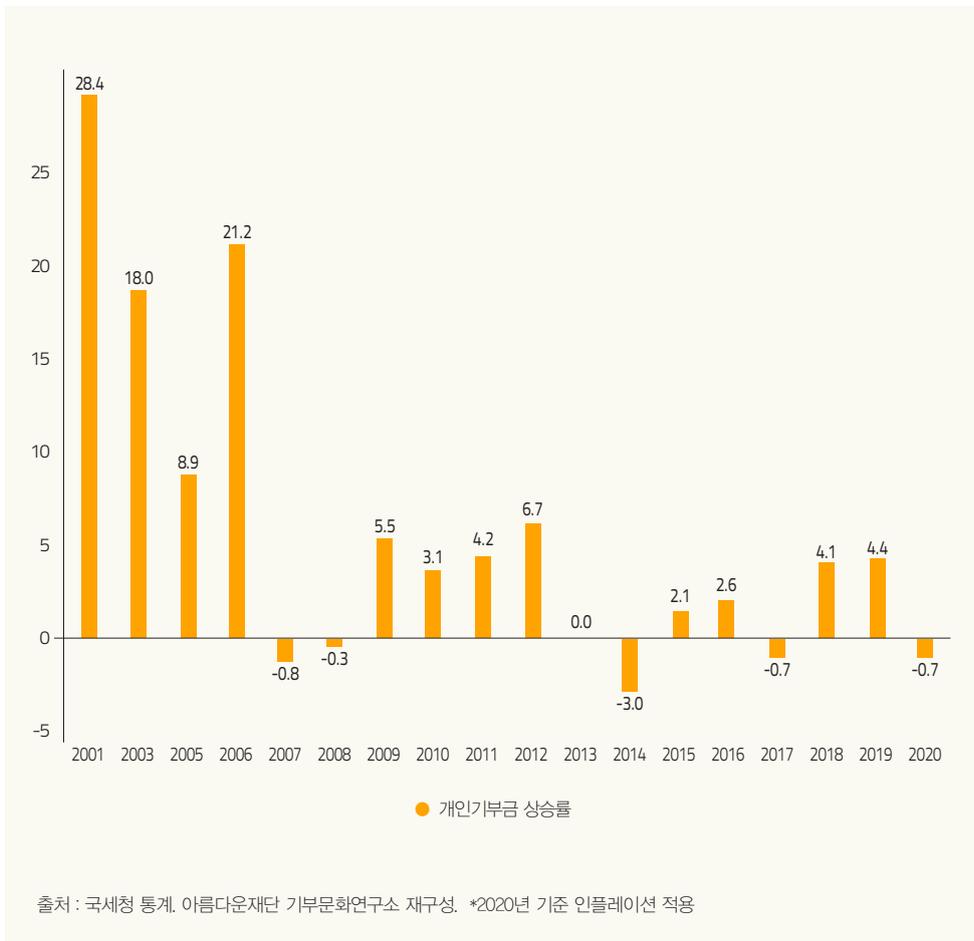
〈그림8. 개인 기부금 변화 추이〉



2. 개인 기부 총액 증감 추이

- 개인 기부 총액 전년 대비 상승률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이
- 2000년대 초반 큰 폭으로 상승하다 2013년 이후 상승률 저조
-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구간은 세계 경제 위기 2007년과 코로나 대유행 2020년
- 2013년 개인 기부 세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후 기부 감소 효과
- 개인 기부는 마이너스 성장 후 다음해 성장으로 회복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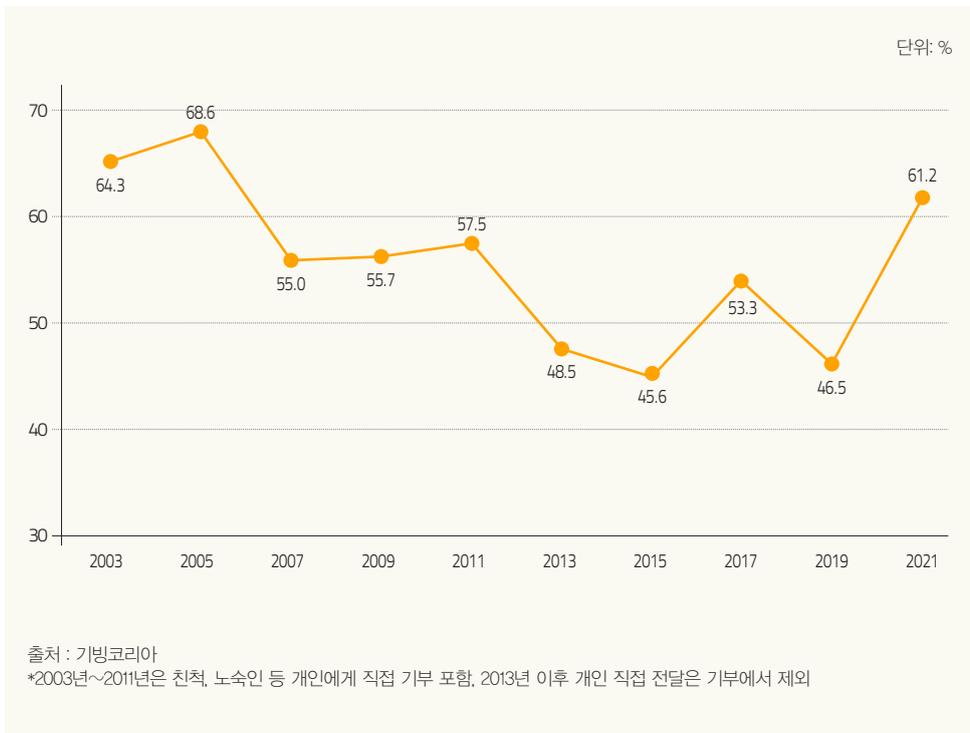
〈그림9. 개인 기부 총액 증감 추이〉



3. 개인 기부 참여율

- 지난 20년간 기부 참여율은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3년 기부 참여율이 50% 이하로 하락
- 2021년 기부 참여율은 61.2%로 2019년 46.5%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
- 코로나 대유행 재난 상황에서 기부 참여율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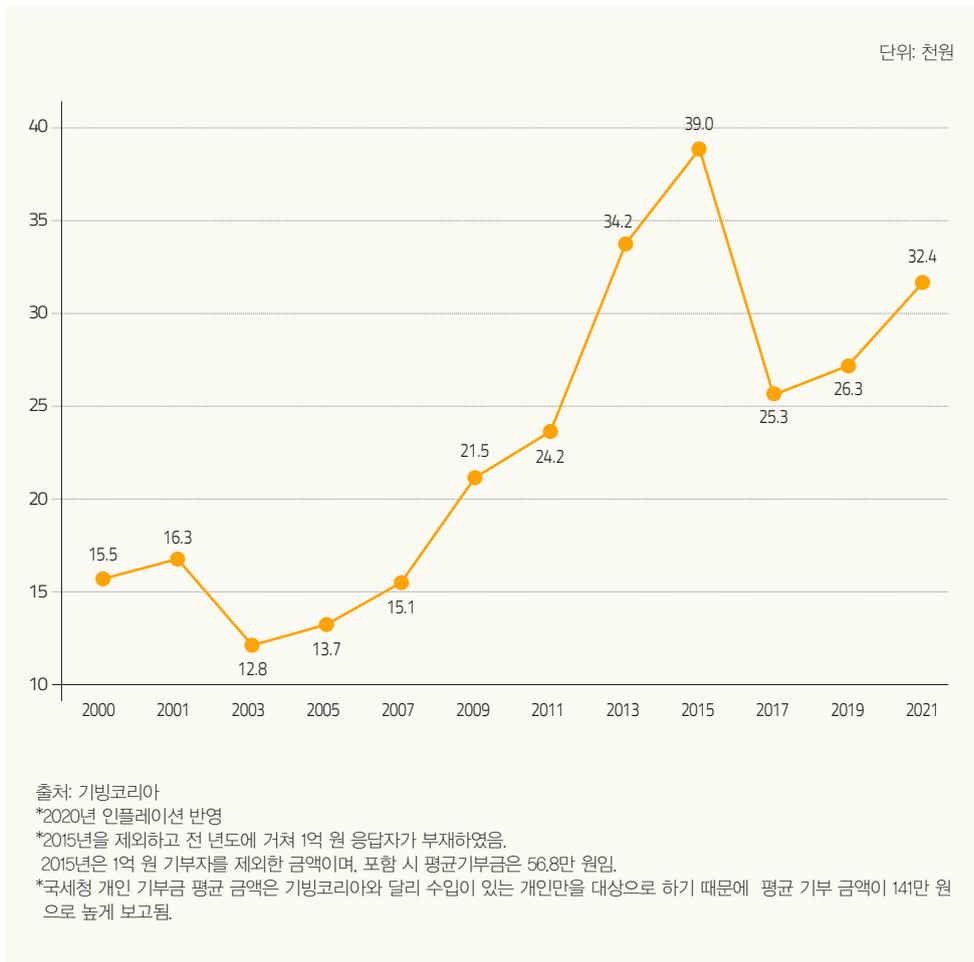
〈그림10. 개인 기부 참여율〉



4. 개인 평균 기부 금액

- 기부자 평균 기부금은 2021년 31.6만 원으로 2019년 26.5만 원에 비해 상승
- 기부 참여율은 낮아지고, 기부자 평균 기부 금액은 대체로 높아지는 가운데 2021년은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 금액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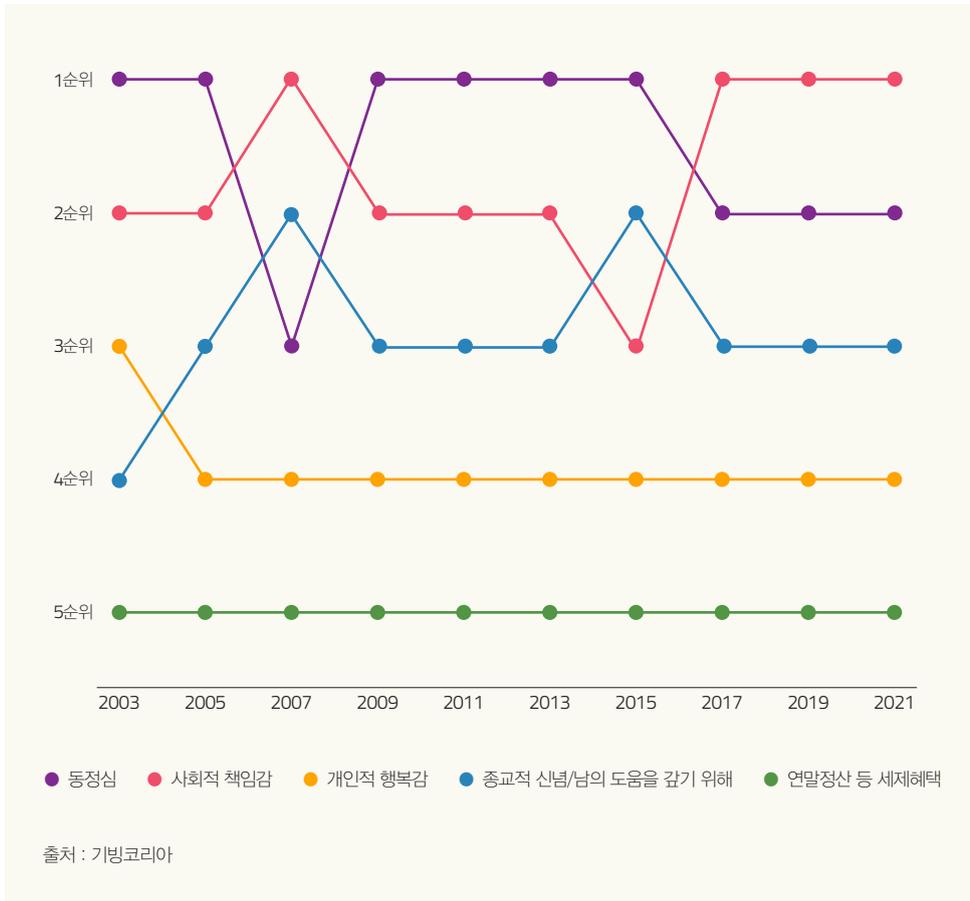
〈그림11. 기부자 평균 기부 금액〉



5. 기부 동기

- 기부 동기는 대체로 동정심 > 사회적 책임감 > 개인적 행복감 > 종교적 신념 > 세계 혜택 순
- 기부 동기는 2000년대 초반 64.6%로 동정심이 월등하게 우세하고 사회적 책임감 26.6%와 18%p 차이가 났으나, 2017년, 2019년은 사회적 책임감이 각각 31.3%, 30.8%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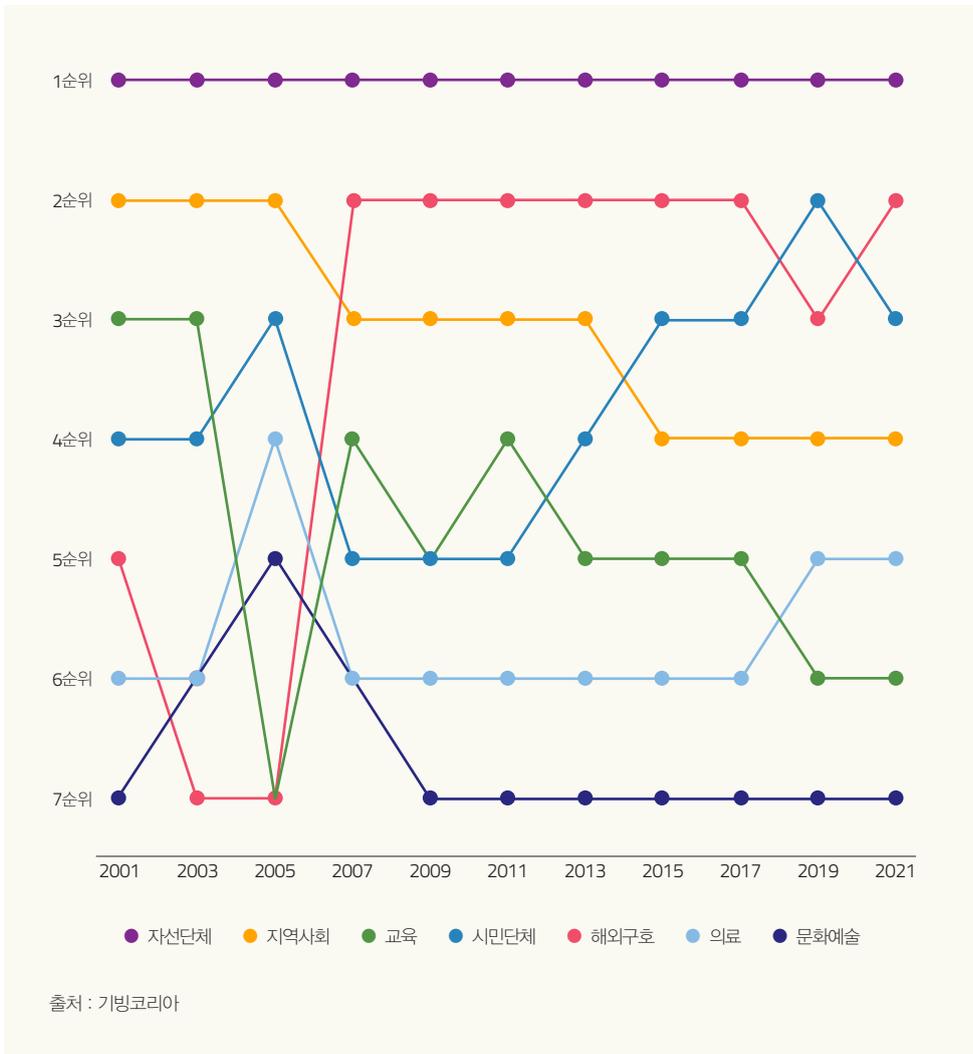
〈그림12. 기부 동기〉



6. 기부 분야

- 기부 분야 중 자선단체는 매해 월등한 1순위이며, 다음으로 해외구호, 지역사회, 시민단체, 교육, 의료, 문화예술 순
- 해외구호는 2007년 이후 2순위로 급상승
- 시민단체는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다 2015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2순위, 2021년에는 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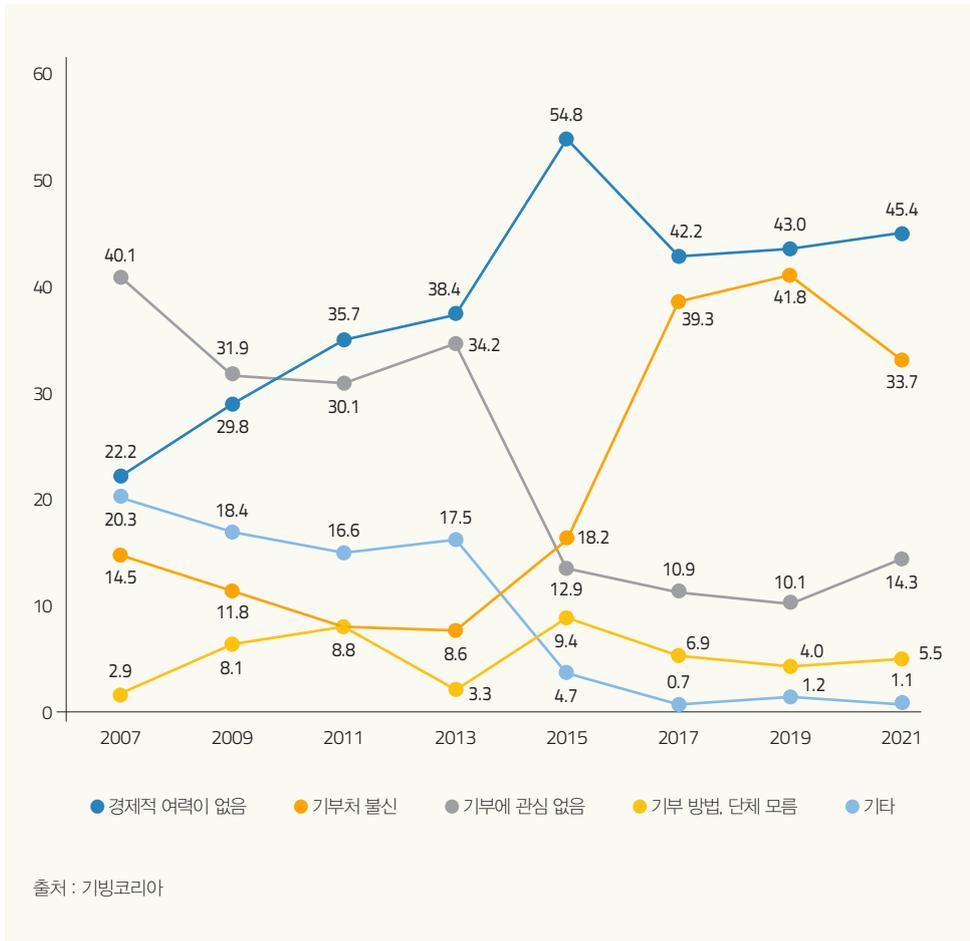
〈그림13. 기부 분야〉



7. 기부하지 않는 이유

- 기부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여력 없음 > 기부처 불신 > 기부에 관심 없음 > 기부 방법, 단체 모름 순
- 기부에 관심 없음이 줄어드는 추이이나, 기부처 불신 비율이 높아지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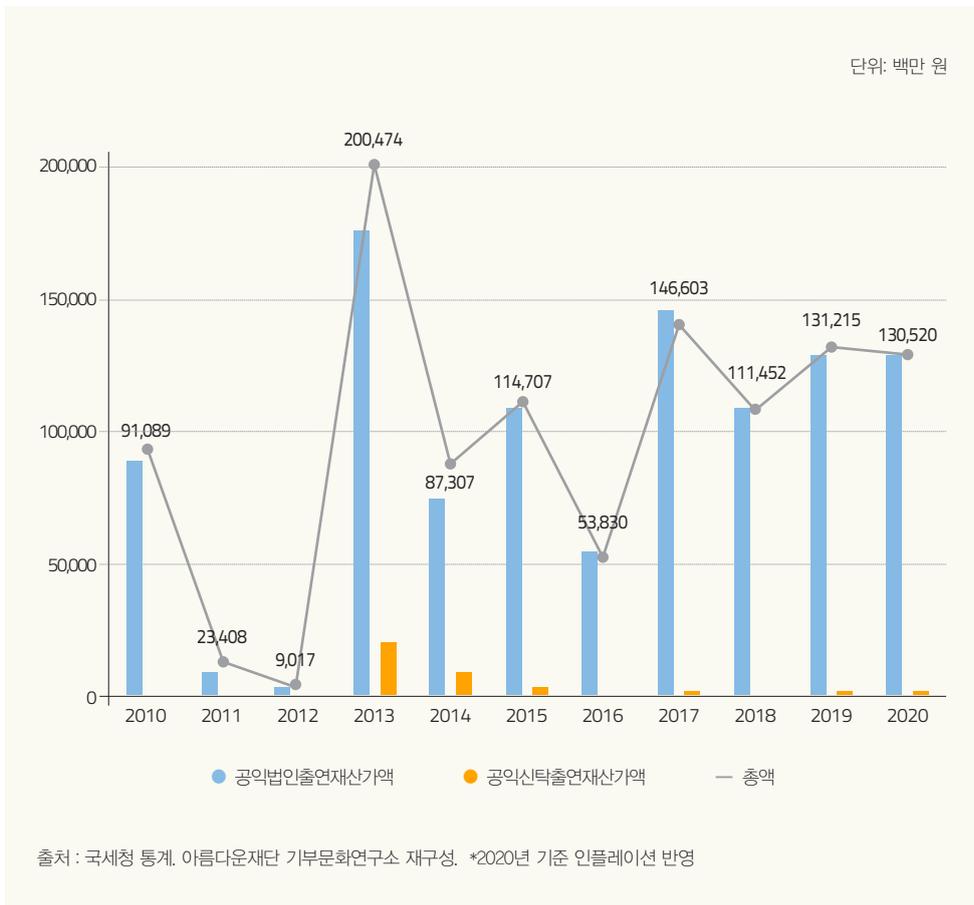
〈그림14. 기부하지 않는 이유〉



8. 유산기부¹⁾

-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유산기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20년 총 1,305억 원
- 해마다 유산기부의 규모가 다른 이유는 한번 유산기부가 이루어지면 많은 금액의 유산이 기부되기 때문

〈그림15. 유산기부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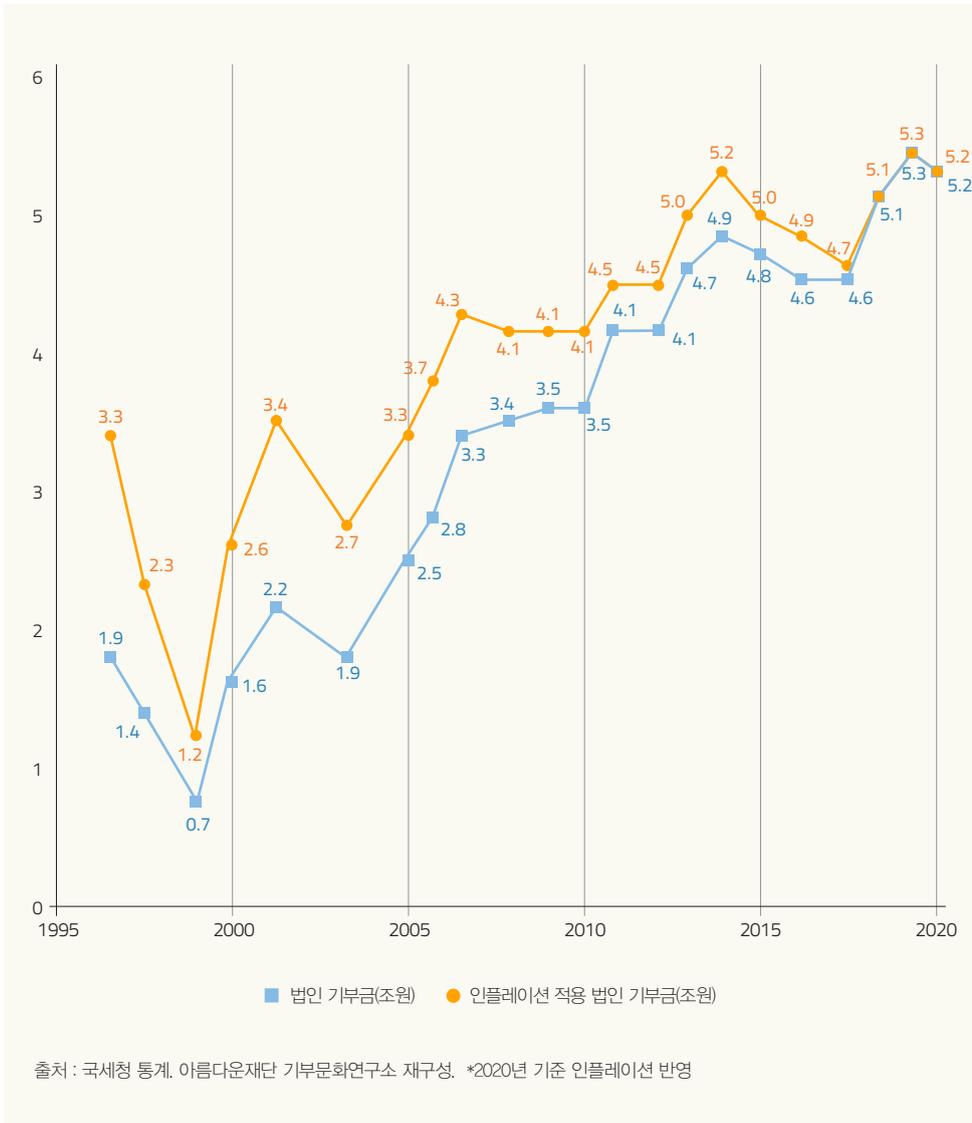
1) 유산기부는 상속세 신고금액 내 과세가액불산입액 중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과 공익신탁출연재산가액을 더한 값. 즉, 공익법인이나 공익신탁에 상속함으로서 과세에서 제외된 금액임.

IV. 기업 기부

1. 기업 기부 총액

- 2020년 기업 기부 총액은 5.2조 원, 2019년 5.3조 원 대비 다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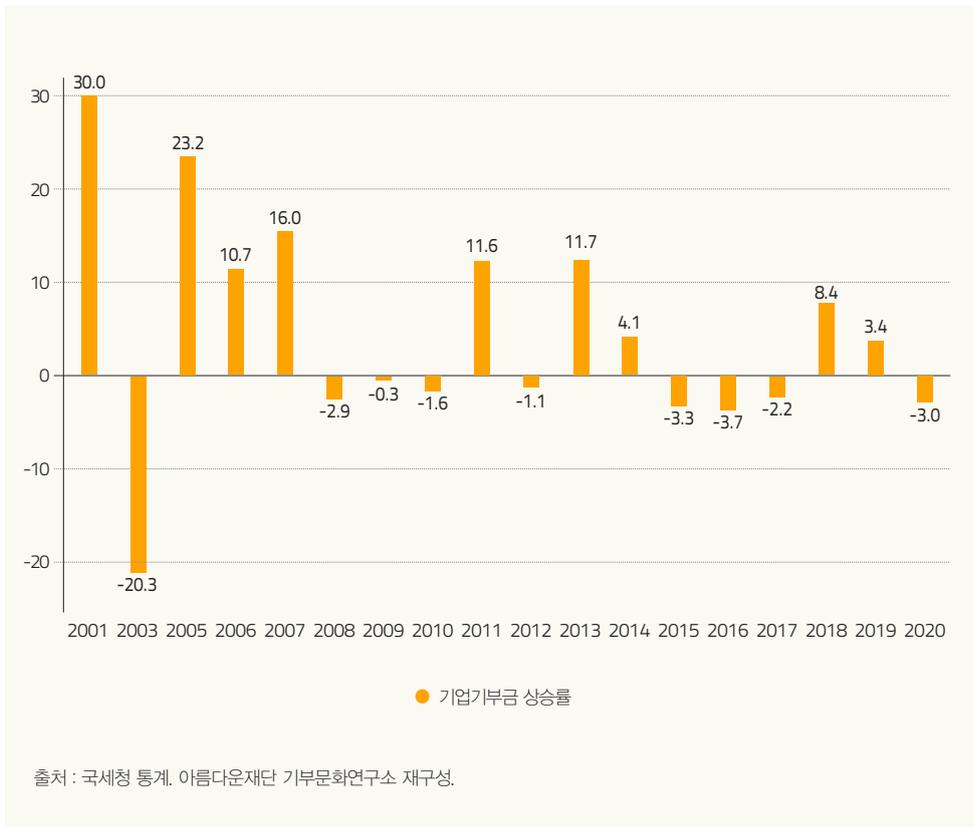
〈그림16. 기업 기부금 변화 추이〉



2. 기업 기부금 증감률

- 기업 기부금 또한 기부 총액과 유사하게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2020년으로 갈수록 상승률이 둔화
- 경제 위기가 있던 2008년~2010년, 2015~2017년,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있던 2020년에 3% 하락
- 기업 기부 등록폭은 개인에 비해 큰 경향
- 개인 기부금은 하락 후 다음 년도에 바로 회복되지만, 기업은 3~4년 후 회복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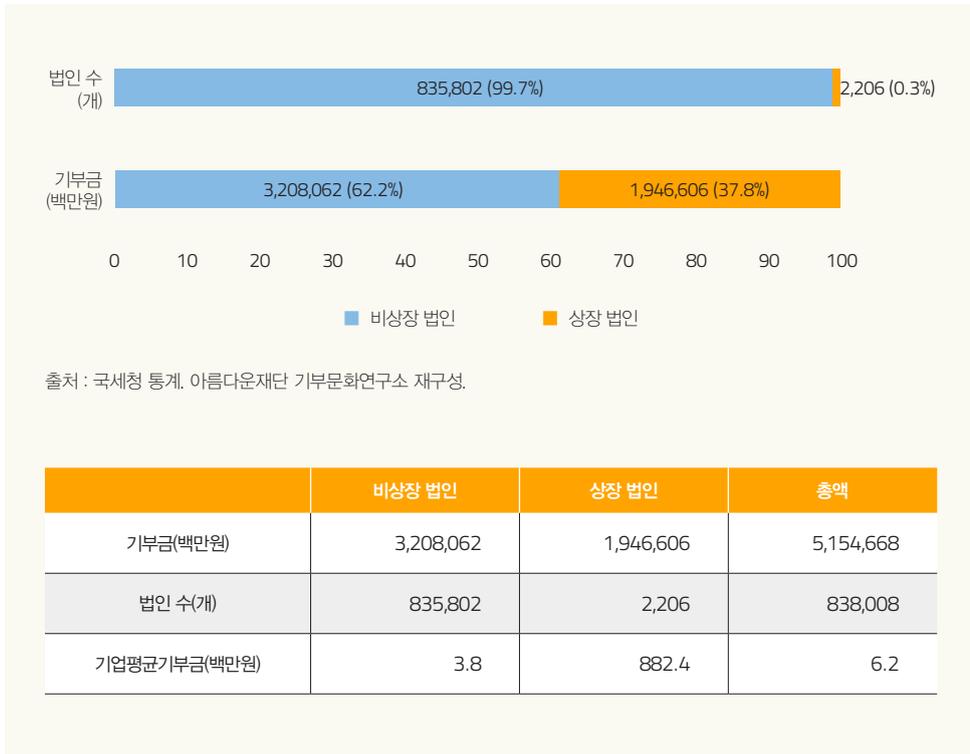
〈그림17. 기업 기부 총액 전년대비 증감 추이〉



3. 기업 평균 기부 금액: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은 총 838,008개, 이중 상장법인 2,206개(0.3%), 비상장 835,802(99.7%)
- 총 기부 규모는 5.2조 원. 상장법인 3.2조 원(62%), 비상장 1.9조 원(38%)
- 상장법인의 비율은 0.3%에 불과하지만 기부 총액의 비율은 37.8%를 차지
- 기업당 2020년 평균 기부 금액은 620만 원. 상장 기업 평균 기부 금액은 8억 8천만 원, 비상장 기업은 38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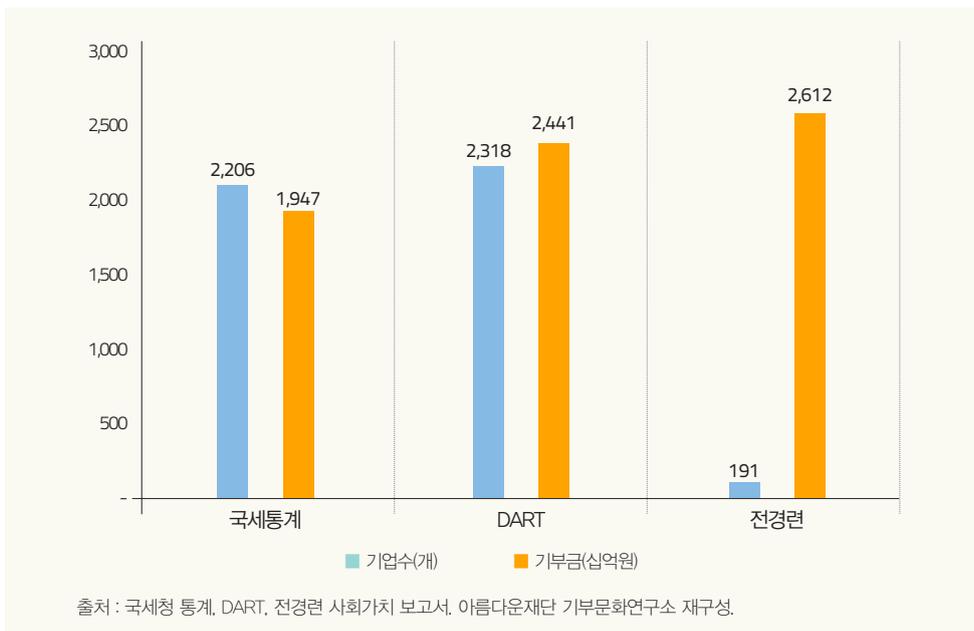
〈그림18.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기부금 비율〉



4. 데이터별 상장기업 기부 총액 비교

- 2020년 기준 상장기업 기부 금액은 전경련 보고서가 191개 기관 2조 6천1백억 원으로 가장 많고, DART가 2,318개 기업 2조 4천4백억 원, 국세통계 2,206개사 1조 9천4백억 원
- 전경련의 조사대상이 현저하게 적음에도 가장 많은 기부 금액인 이유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투입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상위 100대 기업의 기부금 비율이 높기 때문
- 국세통계는 상장·비상장기업의 기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에 근거를 둔 국가통계로 정보의 신뢰도가 높은 반면, 법정·특례 기부금, 지정기부금만 확인할 수 있고 일정 범주에 따른 법인들의 합계만 제시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전경련의 주요 기업의 사회가치 보고서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2020년 기준 191개사가 사회공헌 지출 분석에 포함되어 있다. 표본 수가 많지 않지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기부금뿐 아니라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비용 전체를 포함한 ‘사회공헌비용’을 조사한다.
- 금융감독원의 DART는 상장법인 및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종합적 기업공시 데이터이다. 조사 기간이 가장 길고, 개별 기업들의 구체적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어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공시자료 중 ‘기부금’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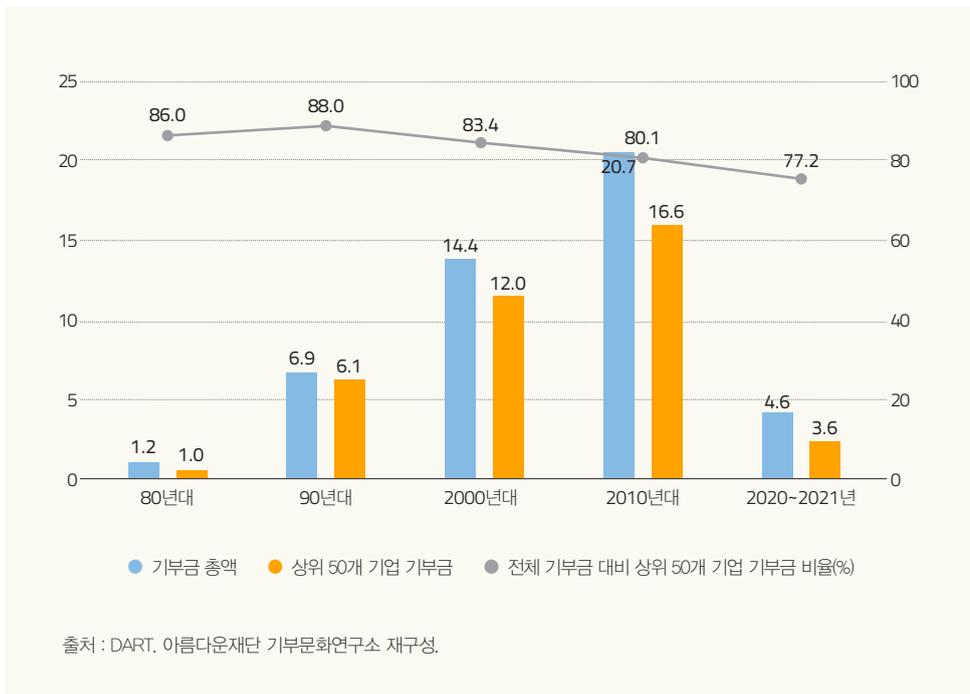
〈그림19. 데이터별 기부금 지출 기업수와 기부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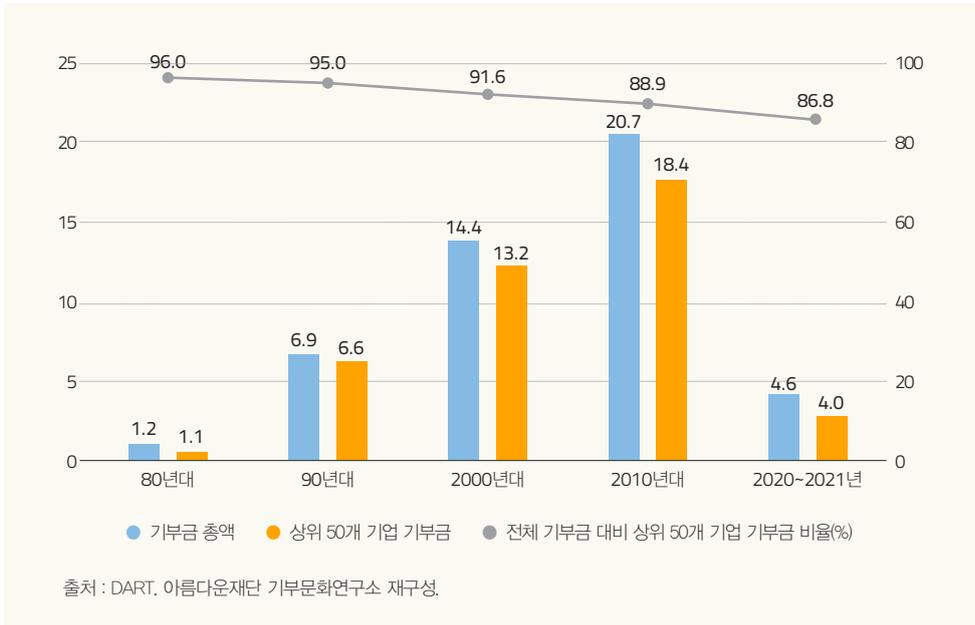
5. 상위 50대, 100대 기업 기부금 비율

- 총 기부금 대비 50대 기업과 100대 기업의 기부금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2021년까지 50대 기업이 평균 81%를, 100대 기업이 90%를 차지. 즉, 39,588개 기업 중 0.13%(50개)가 81%를, 0.25%(100개)가 90%를 지출
- 상위 100개 기업은 80년대 96%, 90년대 95%, 2000년대 92%, 2010년대 89%이며, 상위 50대 기업은 80년대 86%, 90년대 88%, 2000년대 83%, 2020년대 80%로 점점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
- 이는 50대, 100대 이외의 기업 기부 비율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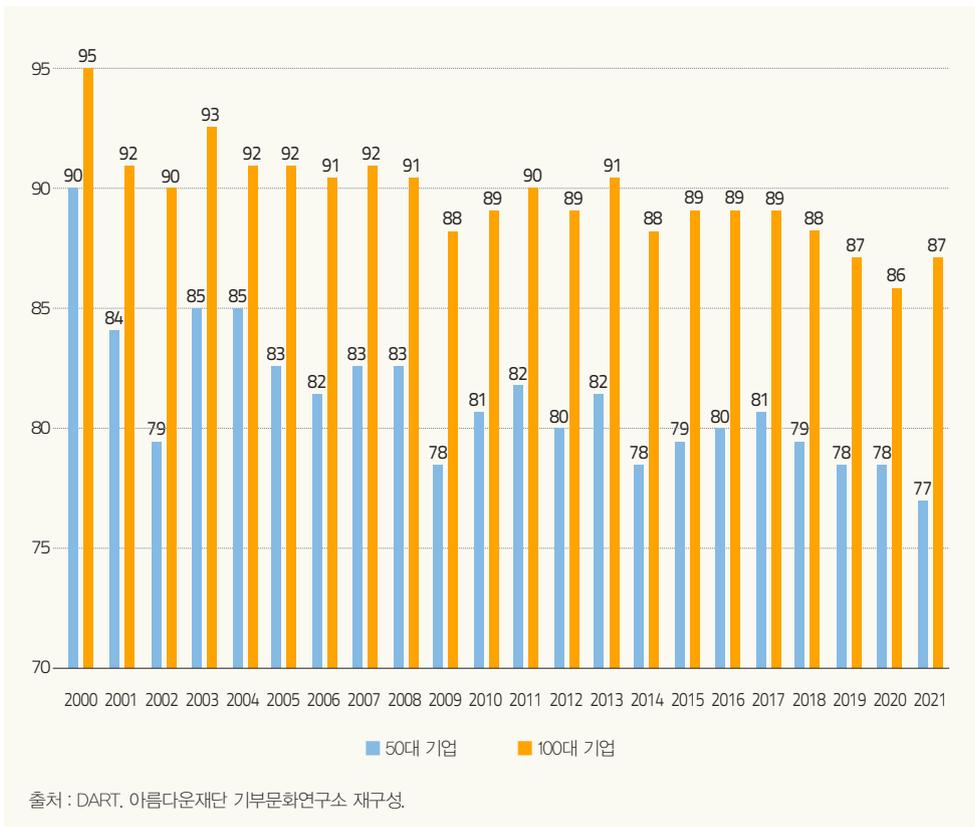
〈그림20. 상위 50대 기업 기부금 비율〉



〈그림21. 상위 100대 기업 기부금 비율〉



〈그림22. 연도별 총기부금 대비 상위50대 기업과 100대 기업의 기부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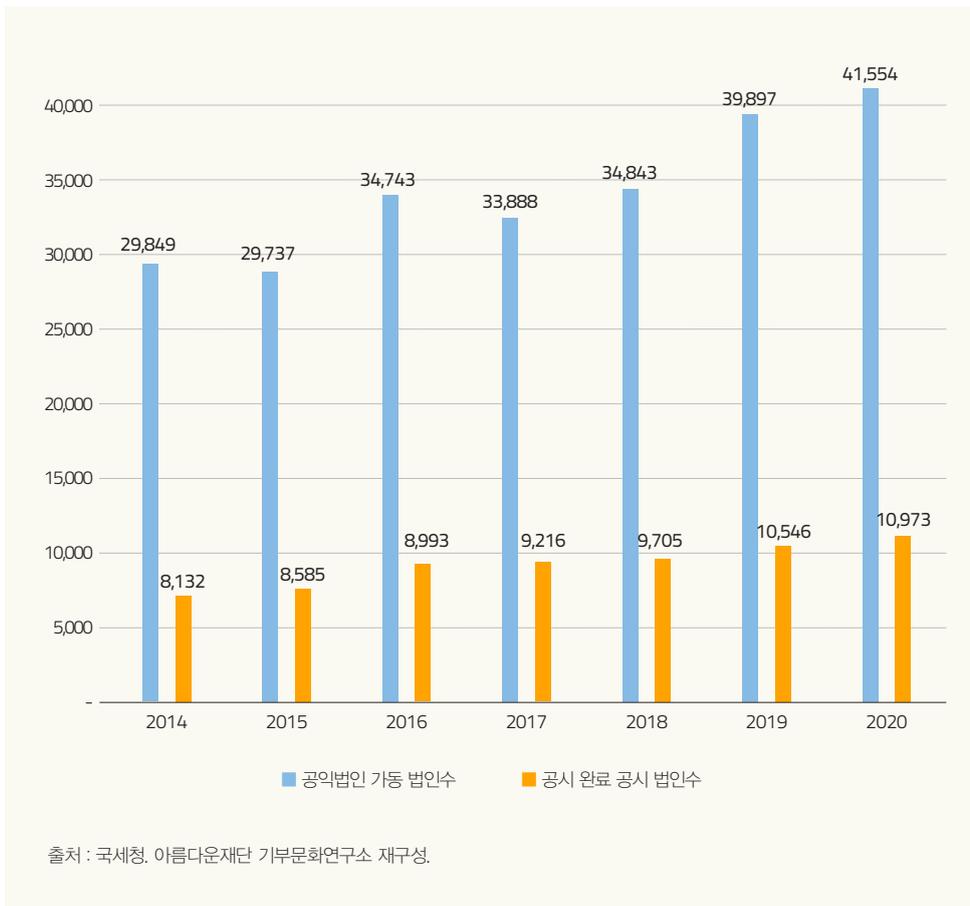


V. 공익법인 모금액

1. 공익법인 현황

- 국내 공익법인은 2014년 29,849개에서 2016년 34,743개, 2019년 39,897개로 증가
- 2020년 기준 가동 중인 공익법인 수는 41,554개로, 이 중 국세청 공시를 완료한 공익법인의 수는 10,973개
- 2019년부터 국세청 공시 공익법인의 대상이 자산 3억 원 또는 모금액 5억 원에서 공익법인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공시 완료 법인 수도 2018년 9,705개에서 2020년 10,973개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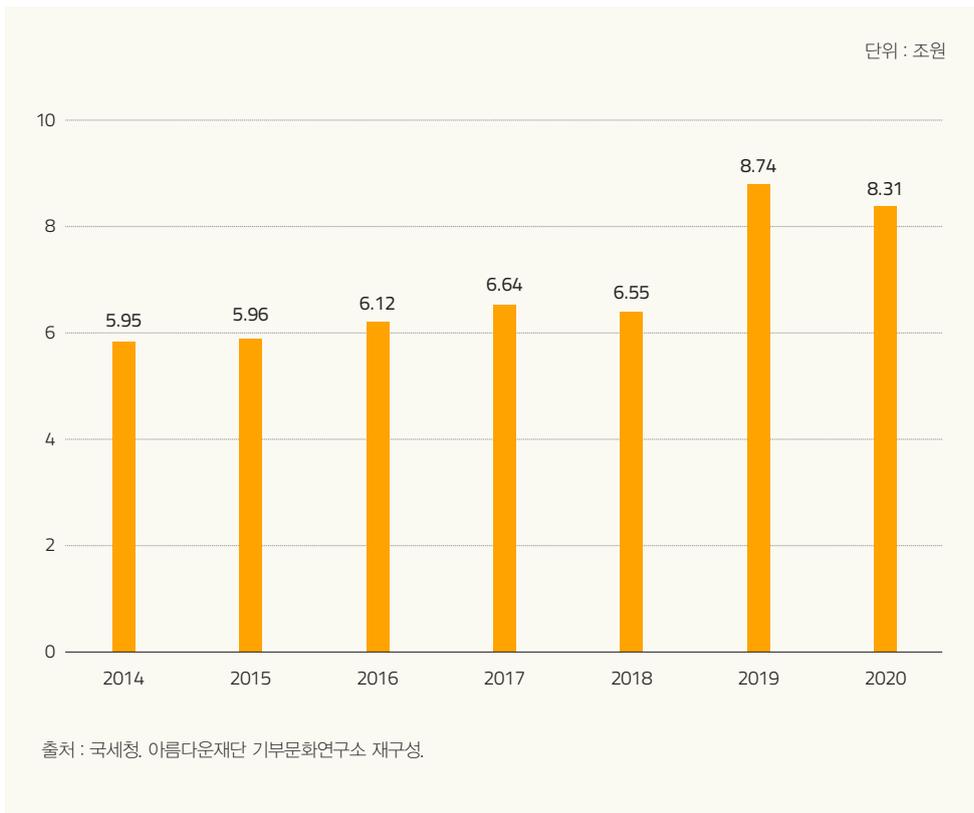
〈그림23. 공익법인 현황〉



2. 공익법인 모금액

- 공익법인 모금 총액은 2014년 5조 9천5백억 원, 2018년 6조 5천5백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세청 공시대상이 확대되면서 2019년 8조7천4백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다소 감소
- 2020년 10,973개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 총액은 8조3천1백억 원으로, 개인과 법인이 기부금으로 신고한 14조3천5백억 원의 57.9% 수준. 이는 국세청 공시를 완료하지 않는 법인이 완료 법인보다 그 수가 많으며, 공시를 하지 않는 단체로 개인이나 기업 기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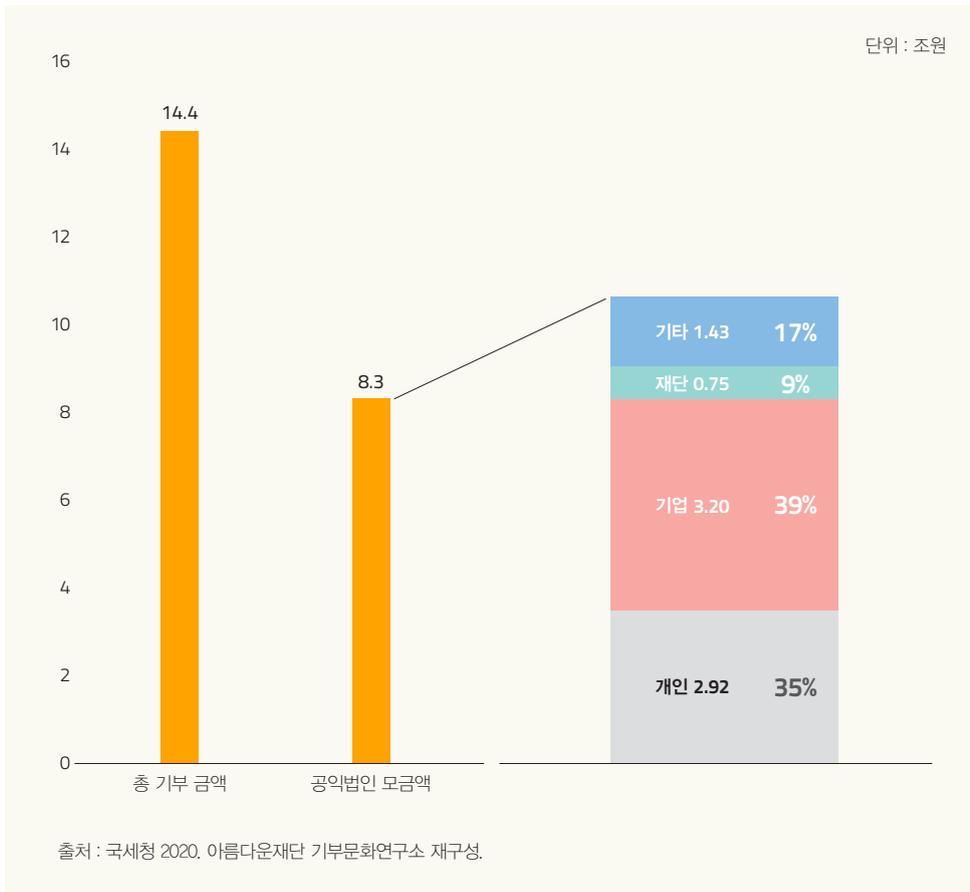
〈그림24. 공익법인 모금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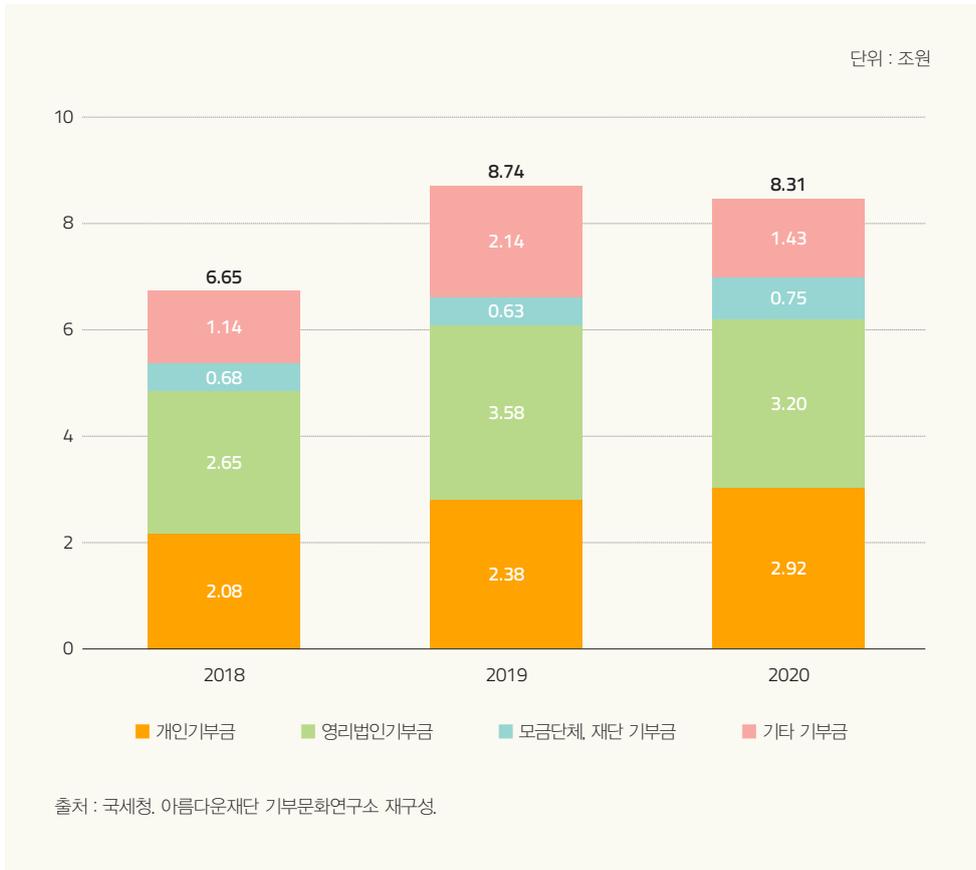
3. 공익법인 모금액

- 2020년 공익법인 모금액 8.3조 원으로 총 기부 금액 대비 57.6%
- 공익법인 모금액은 개인 35%, 기업 39%, 기타 17%, 재단 9% 비율
- 개인 기부 금액은 2018년 2조 8백억 원, 2019년 2조 3천8백억 원, 2020년 2조 9천2백억 원으로 점차 증가
- 기업 모금은 2018년 2조 6천5백억 원, 2019년 3조 5천8백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3조 2천억 원으로 감소
- 2020년 개인 모금은 증가했으나 기업 감소폭이 커 전체적으로 총액은 하락
- 재단이나 중간지원조직 비율은 총 기부 금액 대비 0.75%에 불과. 즉, 중간지원조직이나 배분 기관의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

〈그림25. 총 기부금액과 공익법인 수령 모금액〉



〈그림26. 공익법인 기부처별 모금액〉



아름다운북 아름다운북

비매품/무료

95330



9 788993 842623

ISBN 978-89-93842-62-3